

정규과정 - Adobe Premiere Pro CC

주제: Adobe Media Encoder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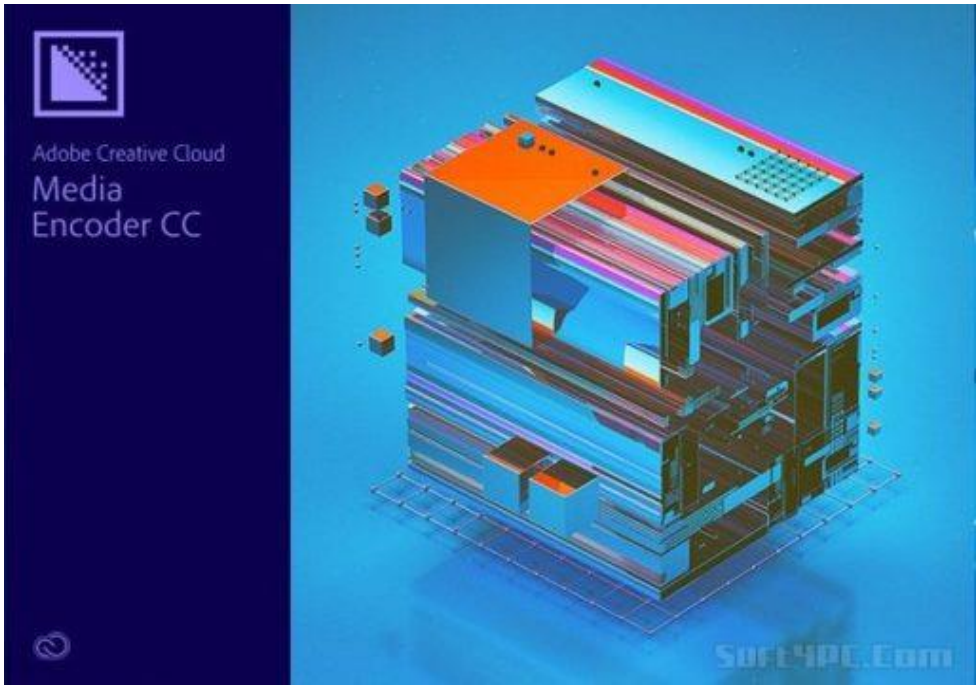


촬영 장비가 발달하면서 영상 크기가 커지고
화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아질수록 용량은 커지고
영상을 구동하기 위해 더 높은 하드웨어 사양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영상이 무겁다고 표현하는데
어도비사의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하면
편집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편집 전 소스영상을 작게 줄이는 방법을
예제로 소개합니다.





Adobe Media Encoder 활용하기

영상작업을 하면 할수록 누구나 장비에 욕심이 나지요.
좋은 촬영장비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했지만
용량이 너무 커서 편집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원본을 편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편집본이 원본만큼 클 필요가 없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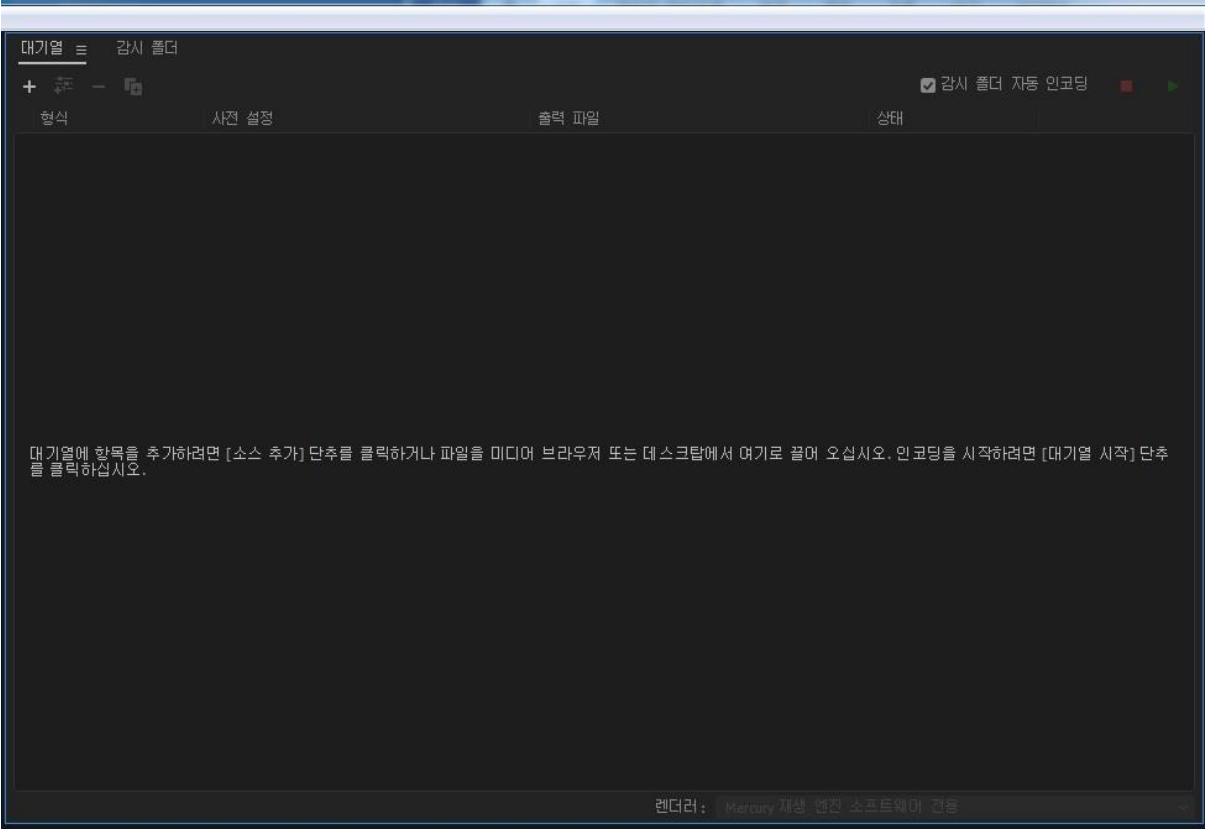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가볍게 만들어서 편집한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프리미어 프로에서 수 많은 영상을 하나씩 변환하기는 불편하지만,
미디어 인코더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오고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 한 번에 다량의 파일 변환 작업을 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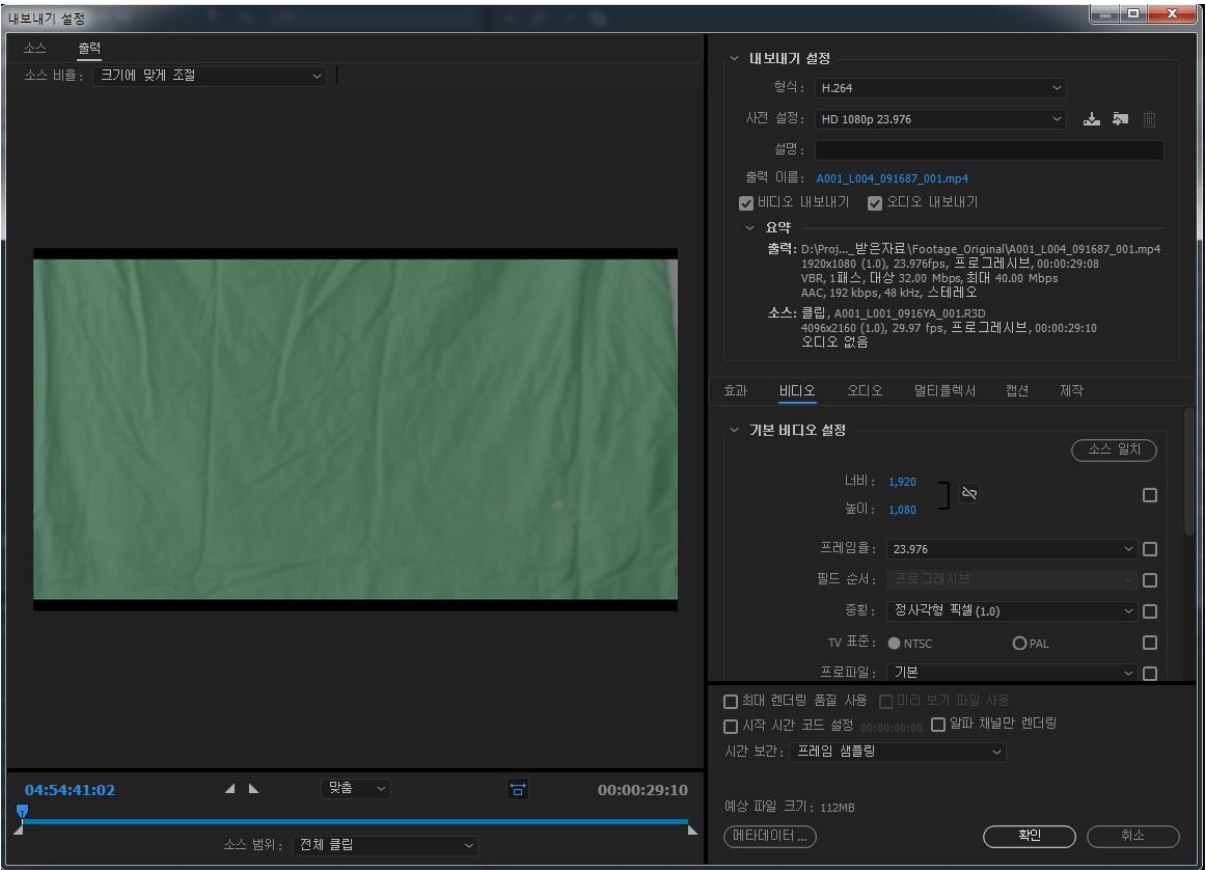


고화질의 무거운 영상을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
가벼운 영상으로 바꾸어
빠르게 작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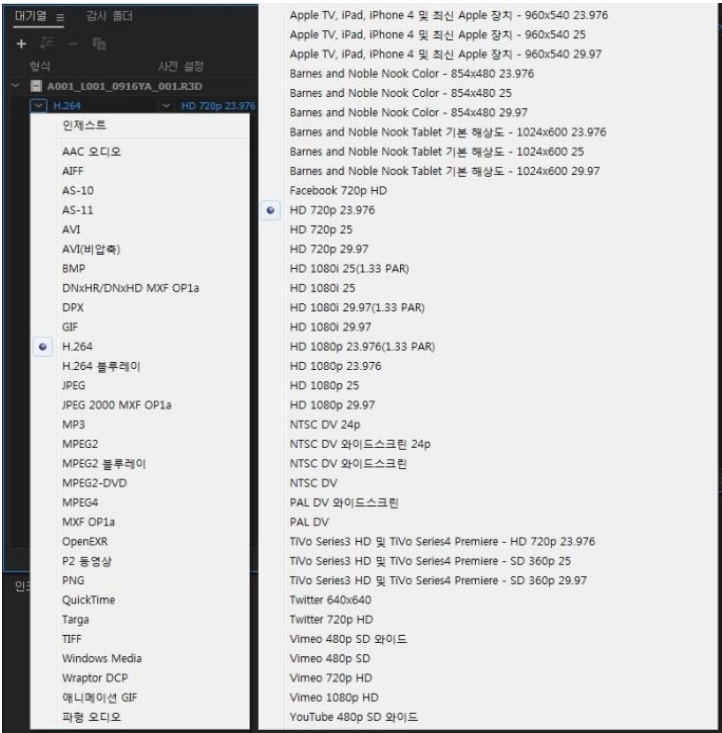
4K 크기(4096 X 2160)의 R3D 파일을
HD크기 (1920 X 1080)의 MP4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의 예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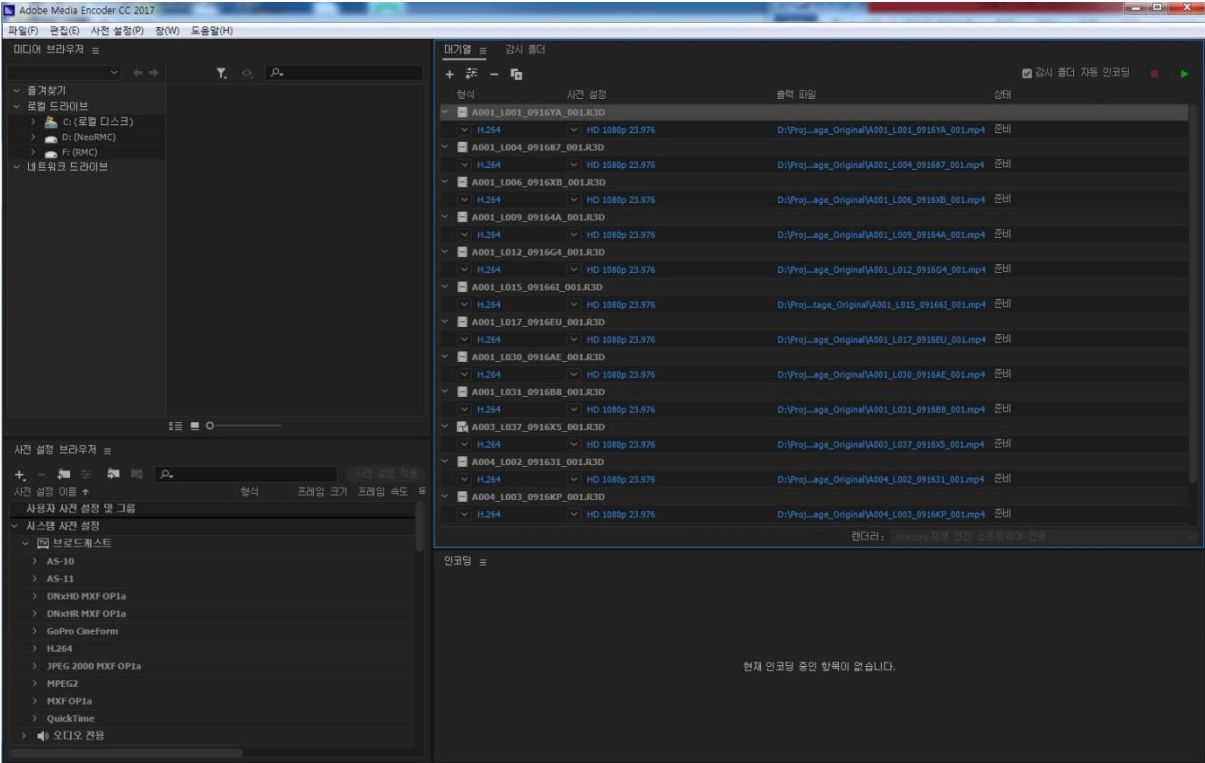
1.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실행한 후 대기열(Queue) 패널에
소스추가(Add Source) 단추를 클릭하거나
해당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여 변환하려는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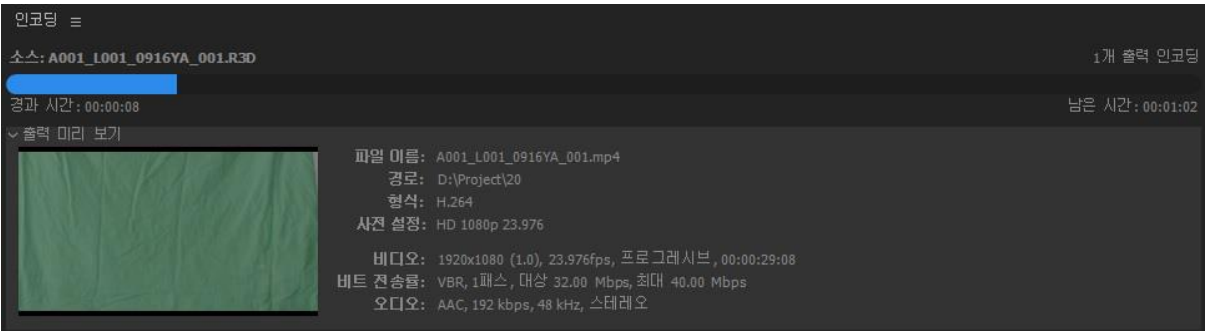
2. 불러들인 파일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파란색의 Preset값을 클릭하면
내보내기 설정 창(export settings)이 나타납니다.
이 때 선택된 파일들의 preset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Tip) 하나의 파일만 불러서 설정 값을
수정한 후 나머지 다른 파일들을 불러오면
모두 동일한 설정 값으로
자동 세팅됩니다.



3. 오른쪽 상단의 초록색 재생버튼을 누르면 대기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한 번에 인코딩이 되며 인코딩 패널에서 인코딩 되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사운드가 녹음되어 있다면 오디오도 같이 인코딩하는 것이 나중에 싱크 작업 할 때 편리합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값을
Preset Browser 패널에서 preset 값을 손쉽게 수정하여 새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영상을 변환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영상을 여러 버전으로 인코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미디어 인코더로 영상을 내보내기 하려면 내보내기 창(Export Settings)에서 '내보내기(Export)' 대신 '대기(Queu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어도비 계정이 있다면
<https://www.adobe.com/kr/products/media-encoder.html>
 링크에서 체험판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